

1 개요

솔할망본은 표선면 하천리 강씨 집안의 조상신 솔할망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 바닷가에서 솔을 주워다가 솔으로 쓰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불을 지펴도 물이 끓지 않아 고팽에 두었더니 꿈에 신이 나타나 자신을 조상으로 잘 위하여 자손들이 큰 벼슬을 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조상으로 모셨더니 과연 꿈에서 들은 대로 되었다.

2 내용

바닷가에 올라온 큰 솔을 주웠다. 두 이레 열나흘 불을 때도 물이 끓지 않아서 고팽[庫房]에 가져다 놓았다. 어느날 밤 꿈에 “나는 수중 용궁에서 올라왔으니 잘 위하여 되로, 말로 분급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마.”라고 하였다. 그래서 항상 위하여 자손에 서귀진 조방장, 정의원, 대정원, 명월만호 같은 큰 벼슬이 나고 가문이 번창하였다.

3 특징

솔할망본은 성산읍 신풍리에 거주하던 여무 홍매화의 전승자료이다. 바닷가에서 주은 솔을 조상신으로 모셨더니 재복이 따랐다는 이야기이다. 신이 스스로 수중용궁에서 왔다고 하였으니 용왕국 따님아기와 관련지을 수 있어서 솔할망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관념한 것으로 보인다.

4 핵심어

용궁, 부자, 서귀진, 정의원, 대정원, 명월만호, 벼슬, 솔

5 원전 서지사항

솔할망본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6 관련 자료